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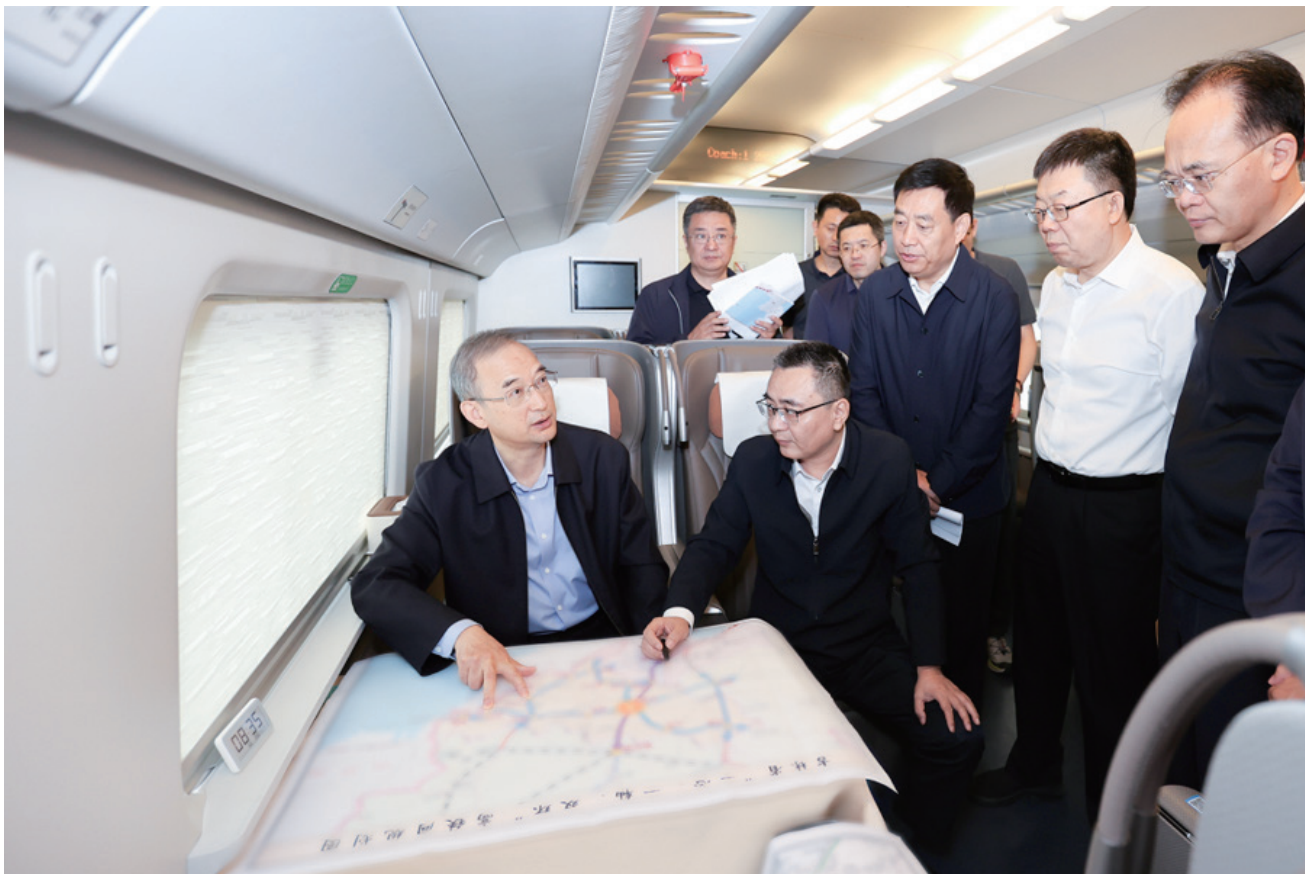
황강 연변에서 조사연구 시 강조

산업배치 가속화하고 기반시설 보완하여 고품질 발전의 새 동력에너지와 새 우세 구축해야

6월 16일, 길림성당위 서기 황강은 연변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에누리없이 실행하고 길림 특색의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15.5' 전망계획을 참담게 편성하고 산업배치를 다그치며 기초시설을 보완하여 길림의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와 새로운 우세를 구축함으로써 충분한 취업을 더욱 잘 촉진하고 군중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야 한다.

황강은 철도 건설 상황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고속철을 타고 연길시로 가는 도중에 그는 중국철도집약국 룽의 회보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우리 성의 철도 '15.5' 전망계획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함과 아울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교통선행을 견지하고 중점적으로 철도 건설을 잘 틀어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합간선(京哈干线) 길림 구간 등 주요 선로의 속도를 뛴수룩 빨리 시속 350 킬로미터로 향상시키고 장춘-사평-료원-통화, 연길-장백산, 돈화-묵단강 등 선로를 우선적으로 건설하며 치치할-통료, 장춘-통료, 훈춘-동녕 등 선로는 뛴수룩 빨리 전망계획에 포함시켜 동북도시군을 더욱 잘 연결시켜야 한다. 룽가역(龙嘉站) 종합교통 환승중추 전망계획을 참담고 세밀하게 세워 여러가지 교통 방식이 질서있게 연결되도록 하고 넓은 철도와 관광 전용선의 수소에너지화 개조를 다그쳐야 한다. 개혁의 사고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규칙을 지키면서도 혁신적 돌파를 하며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뛴수룩 빨리 형성해야 한다. 고속철도의 건설과 운영은 당시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모집하여 충분한 취업을 더욱 잘 이끌어야 한다.

황강은 연변커시안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인삼제품 생산 정황과 2기 생산확대 프로젝트 건설 진전을 현지 시찰하고 계속하여 혁신연구개발 강도를 높이라고 기업을 격려했으며 오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삼가공 기업의 '대외진출'을 지지할 것을 연변에 요구했다. 룽정탄소섬유첨단기술산업단지 프로젝트 현장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산업이 기후를 형성하려면 장기적인 축적이 필요하나 상하위의 협동에 초점을 맞추



▲ 6월 16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연변에서 조사연구를 진행, 고속철을 타고 연길시로 가는 도중에 길림성 철도 '15.5' 전망계획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고 산업사슬을 형성하도록 기업을 적극 유지하여 더욱 완벽한 산업생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G331 변경개방관광대통로 건설에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황강은 도로, 제방 등 시설 건설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보면서 관련 부문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성은 곧 장마철에 진입하게 된다. 관련 지역과 부문은 반드시 사전에 홍수방지, 위험대비, 재해구조 제반 준비를 잘하고 G331 로선의 기반 보강, 석룡(石笼) 비탈 보호 등 건설 진도를 다그쳐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청렴공정을 구축해 교통, 수리 등 부문의 간부들이 '늘 강가를 걸으면서도 신발을 젖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常在河边走, 都不湿鞋).' 룽정 삼합통상구에서 황강은 대외무역경제를 확대,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연변에 요구했다. 지난해 이곳에서 조사연구를 하면서 황강은 부근의 몇그루 고목을 잘 보호하고 변경관광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라고 현지 부문에 요구하였다. 다시 이곳을 방

문했을 때는 이미 고목 커피점이 새로 건설되어있었고 유명한 인기 명소로 되었다. 황강은 경의를 잘하여 관광객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라고 업주들을 격려했다. 그는 또 대학생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과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그들이 길림성을 더욱 깊이있게 료해하고 흥변부민과 변경 안정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많은 기여를 하기를 희망했다.

조사연구 과정에 황강은 연변의 '15.5' 전망계획 편성사업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연변은 고품질 발전 잠재력이 거대하기에 전략으로 사업을 도모하고 배치하는 데 능해야 하며 담력이 좀더 크고 동작이 좀더 실제적이어야 하며 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고 병목을 돌파하여 내생동력을 한층 더 불려일으켜야 한다. 첫째, 현대화 산업체계를 힘써 구축해야 한다. 풍부한 자원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여 경영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더 많은 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대두만강창의'의 실시에 립각하여 중-로 기업이 경제무역 왕래를 강화하고 문화관

광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교통부문은 개방의 '개척선봉'(开路先锋)이 되어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내의 철도, 도로, 수로 등의 운수 통로를 원활히 하고 상호 연결과 소통을 촉진하는 '선수'(先手棋)를 잘 두어야 한다. 상무부문은 상품 공급원을 잘 조직하여 통상구의 화물 집화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둘째, 력사 문화의 내포를 깊이 발굴해야 한다. 고구려, 발해국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잘 들려주고 다양한 문화관광 제품을 더욱 많이 개발하여 문화관광에서 '치레적인 것이 많고 실제적인 것이 적은'(面子上的东西多、骨子里的东西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동질화 발전을 피해야 한다. 셋째, 민족 단결과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 사상정치 인도를 대대적으로 틀어쥐고 여러 민족 군중사업을 인내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잘하며 '민생기조를 보장'(管肚子)하면서도 '사상문화건설'(管脑子)을 강화하여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한층 더 확고히 다져야 한다.

호가복, 리위, 류계가 조사연구에 참가하였다.

/ 길림일보

길림성, 대학입시 지원서 작성과 입학 시간 공포

6월 17일, 길림성교육고시원은 2025년 대학입시 지원 인터넷 작성과 학생모집사업 배치를 발표했다. 6월 26일부터 수험생들은 '길림성 일반대학입시 수험생 봉사 플랫폼'에 접속하여 규정된 시간내에 인터

넷 지원서 작성을 완성할 수 있다. 7월 8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차수를 나누어(分批次) 학생모집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기간 수험생들은 매일 저녁 22시 이후 당일 모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길림성교육고시원

연변 '승학연' '감사연' 불법 개최와 참여 엄금

대학 입학 시즌을 맞이해 연변주 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일전 당원간부와 공무원들이 '승학연'(升学宴) 또는 '감사연'(谢师宴)을 불법적으로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해 부당한 리익을 챙기려는가 하면 규정을 어기고 접대하는 등 부정적인 풍조를 근절하고 청렴한 정치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규률요구 '6개 금지' 내용을 발표했다.

규률요구 '6개 금지' 내용에 따르면 '승학연' 또는 '감사연'을 불법적으로 개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개최한 '승학연' 또는 '감사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어떤 형식이나를 막론하고 소속 단위, 하급 단위 및 관리·봉사

대상자를 초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녀 또는 친족의 대학 입학을 빌미로 부당하게 레물이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금 또는 관리·봉사 대상자의 자금·물품을 사용해 연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타 '승학연' 또는 '감사연'과 관련된 불법적인 개최 또는 참여 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엄격히 조사하고 해당 당원, 간부 또는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함과 동시에 단위의 관련 책임자의 책임도 추궁할 것이라며 사회각계의 감독과 제보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연길뉴스넷

왕청현의 두 유치원

중국조선족농악무(상모춤) 전승기지로



6월 13일, 왕청현중국조선족농악무전시관에서 중국조선족농악무(상모춤) 전승기지 현판 수여식 및 무형문화유산 학교 진입 행사가 열린 가운데 왕청현의 두 유치원이 중국조선족농악무(상모춤) 전승기지로 지정되었다.

전승기지 설립은 '산업과 교육의 융합, 문화와 교육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조치로서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전승인들을 학교로 초청하는 것은 민족단결교육을 증진하고 청소년들이 우수한 전통문화를 인지하고 공감하며 계승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행사에서는 왕청현 제1유치원과 제4유치원이 중국조선족농악무(상모춤) 전승기지로 지정되었으며 7명의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전승인들이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도교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전승인 김명춘이 중국조선족농악무의 기원과 발전, 력사적 전승 그리고 예술적 특징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현재 왕청현에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전승인 1명, 성급 1명, 주급 4명이 있다.

/ 왕청현융합매체

연길 새 캠퍼스 두곳 가을학기 사용에 투입

연길시 서부 핵심구역에 위치해 있는 연길시 북산소학교 화성캠퍼스 및 제4중학교 화성캠퍼스 건설이 6월 30일까지 전부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가을학기부터 사용에 투입될 전망이다.

연길시북산소학교 화성캠퍼스는 부지면적이 2.1만평방미터, 건축면적은 1.5만평방미터이며 36개의 학급에 1,620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데 올해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연길시제4중학교 화성캠퍼스는 부지면적이 3.5만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1만평방미터이며 총 36

개의 학급에 1,800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두 캠퍼스는 과학활동실, 실험실, 컴퓨터교실, 음악미술활동실, 식당 등을 갖춘 교육 건물을 건설할 예정이며 실외에는 표준 운동장, 통구장, 배구장 등 활동구역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사는 6월 30일에 전부 완공될 예정이다.

두 학교가 사용에 투입되면 지역내 적령 아동의 입학 압력을 뚜렷이 완화하고 의무교육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육 발전수준이 더욱 균등하게 된다.

/ 길림일보



해동된
장백산천지
모습 드러내

장백산 기상 데이터에 따르면 6월 15일 오후, 천지의 얼음이 3분의 1가량 자연적으로 풀리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세찬 바람이 얼음을 밀어내면서 천지의 얼음면이 하루밤새에 완전히 사라졌다. 이와 함께 뚝산에 둘러싸인 파이란 천지의 호수면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다.

/ 길림일보